

오순절 후 열여덟번째 / 세계 성찬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0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통일3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0 번 (시편 9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디모데전서(1 Timothy) 4:4-10	임필재 집사
찬 양 Anthem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말씀 앞에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53 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통일39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차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신앙과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1: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개역개정 딤후4:6)

“If you point these things out to the brothers,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brought up in the truths of the faith and of the good teaching that you have followed.” (NIV 1 Timothy 4: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 (주일)	10/2 (월)	10/3 (화)	10/4 (수)	10/5 (목)	10/6 (금)	10/7 (토)
왕상	왕상3	왕상4,5	왕상6	왕상7	왕상8	왕상9	왕상10
본문	엡1 겔34 시83,84	엡2 겔35 시85	엡3 겔36 시86	엡4 겔37 시87,88	엡5 겔38 시89	엡6 겔39 시90	빌1 겔40 시9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4수 오후7:30)	“영성의 갈”(7)-“평화와 안식의 영성”(매128-30)
토요 새벽기도회 (10/7토 오전6:30)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시119:105-112)

지난 주일(9/24)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살후 3:1-6)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대개의 경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자칫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단지 고백만 하면, 구원은 파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오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살후 3:2)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분명)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믿음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베드로와 스테반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에 대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찢렸으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회개했지만(행 2장),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말씀을 전했던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민감하게 받아드리며?” 또한 “어떻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여, 우리도 1)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고, 2)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며, 3)또한, 영적인 계엄령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